

조선족 기업인 심재관, 특허약품생산센터 구축 계획

1기 투자 7.88억원, 천진 청송제약 스마트공장 정초식 가져



6월 16일, 천진시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 중점 프로젝트인 청송(천진) 제약유한회사의 무균제제(无菌制剂) 생산공장 1기 건설 프로젝트가 천진 경제기술개발구 서구에서 정초식을 가졌다.

천진시조선족련의회 심재관(沈載寬) 회장이 전액 투자한 자회사인 청송(천진) 제약유한회사는 이곳에 연구개발과 생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서구 신안로와 신업 2거리, 3거리의 교차로에 위치해있으며 2기 공사 프로젝트로 나뉘는데 1기 공사 프로젝트는 탄소페닐실린류(碳青霉烯类) 고급제제 약품 스마트공장 건설로서 건설후 국내 최초로 탄소페닐실린 전제품 약품제제의 연구개발과 생산능

력을 갖춘 기지로 될 전망이다. 2기 프로젝트는 특허약품생산센터로 수준 높은 GMP 스마트와 특허약품생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1기 프로젝트는 건축면적이 3만 평방미터이고 도합 4개 생산라인이 있으며 총 투자액이 7.88억원인데 그중 고정자산 투입이 6.02억원, 연구개발 투입이 1.51억원, 정보화 건설 투입이 0.35억원에 달한다. 2기 프로젝트는 건축면적이 1.4만평방미터이고 도합 4개 생산라인이 있으며 총 투자액이 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중 연구개발 투입이 1.2억원, 생산라인 고정자산 설비 투입이 1.2억원, 청정작업장 투입이 0.4억원이며 기타 설비 투입이 0.2억원에 달한다.

현재 2기 프로젝트도 준비중에 있다.

청송의약그룹 리사장 겸 총경리인 심재관은 “청송제약의 건설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청송의약그룹의 업무 발전에 ‘가속도’를 주입할 것이며 청송의약그룹 업무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될 것이다. 청송제약은 국내외 선진적인 제약 기술과 설비를 모아 공장의 자동화와 스마트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고 연구개발과 혁신,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 등 다방면에서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여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송의약그룹주식유한회사는 중국이 립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비추어 자주적인 연구개발에 의탁하고 글로벌 특색 의약 제품과 기술을 선별, 도입하여 중국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상장 신청, 품질 통제, 상장후 관리 및 상업화를 완성한 의약기업이다. 청송의약은 항생제 제품 7종, 소아과 제품 2종, 골과 제품 2종, 안과 제품 4종 등 주요 취급 품목 3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여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70개 독립판사처를 가지고 있다.

현재 청송의약은 40여개의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연구제작 중인 제제 품종 15개, 원료약 품종 5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도 판매 규모는 13억원을 초과했다. 청송의약은 전국 원연(原研) 약품 도입 개발의 선도기업으로서 매우 풍부하고 성공적인 시장 보급 및 판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품종이 세분화된 분야에서 시장점유를 5위 안에 든다.

청송제약은 완벽한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GMP 규범에 따라 엄격히 생산을 조직하고 약품 품질은 국제 최고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원자재 구매로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고리마다 엄격한 품질 통제를 진행하여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수요와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날 천진시조선족련의회 리태운 서기와 박병민 부회장, 리천우 부회장, 원일성 비서장 등 인사들이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정초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협재를 부회장은 꽃바구니를 보내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 소식은 천진 TV 등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다.

/ 유경봉기자 / 사진 홍동연

새로 떠오르는 연길의 핫플레이스

왕흥벽, 중국조선족민속원, 발전 언덕길에 이어 관광객들은 연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打卡地)를 찾아 도시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 있다.

서시장 남쪽권 해란로에 있는 ‘연길’이라고 쓰여진 붉은색 벽, 해란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는 연길’이라고 쓰여진 작은 문화정원, 대천성에 있는 조선

족 전통 풍격의 건축 배경에 ‘연길’이라고 쓰여진 한 커피숍의 외벽 그리고 BRT 버스정류장...

“아무렇게나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오네요!”, “나의 또 하나의 인생 샷 탄생”... 새롭게 등장하는 핫플레이스를 찾아 기념사진을 남기는 관광객들마다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즐기고 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 방문 봉사로 경영환경 최적화

중한시범구 실외 간판 시설의 품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정결, 깔끔, 안전, 질서’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은 방문 봉사의 수준 제고로 ‘기업 군중이 만족하는’ 도시 관리 봉사 품질 형성에 힘쓰고 있다.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은 장춘시 도시관리국의 실외 간판 설치에 관한 ‘6가지 강력한 조치’를 출발점으로, 지역내 실외 간판 설치 작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관할구역내 시장

경영주체와 적극 소통하고 방문 홍보를 통해 ‘봉사+관리’ 사업 모식을 확정했다.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 사업 일군은 영업허가 신청 상담부터 실외 간판 양식 설계 지도, 설치후 일상 유지 및 안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봉사 지도하였다.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은 계속해서 봉사 관리 모식을 탐색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여 시장경영주체와의 홍보 및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기업 대중을 만족시키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

훈춘시 경영환경 지속 개선 우수한 환경으로 발전의 힘 모아

“훈춘시의 경영환경은 아주 좋다. 이번에 9개의 분회사 변경과 설립 업무를 처리했다. 예전에는 상기업 무수속을 밟으려면 한달이 걸렸지만 지금은 당일엔 모두 끝낼 수 있다. 아주 만족한다.”

일전 훈춘시정부무대청에 업무를 보러 온 연변성명부동산중개유한회사의 책임자 고성명이 기뻐하며 말했다.

근년에 훈춘시는 개혁으로 동력을 증가하고 개방으로 활력을 보태는 것을 견지하면서 정부 직능 전환을 부단히 다그쳐 기업 개설 전액 무료화, 1,242가지 정부봉사사항 ‘무차별’ 종합접수를 실현했다.

심사, 비준을 규범화하는 전제하여 훈춘시는 봉사 방식을 혁신하여 훈춘시범구 정부봉사중심에 행정 심사비준 봉사창구를 개설, 시범구내 기업의 영업허가증 신청, 변경, 등록, 말소 등 업무에 대해 지도, 심사, 중서 발급 등 봉사를 제공했다. 기업을 설립한 후 모든 절차의 병렬심사비준을 실현할 수 있고 기업 개설 시간을 업무일 기준 1일로 단축해 정부봉사 수준을 확실히 제고했다.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다. 훈춘시는 도급 사업을 적극 시달하고 봉사전문일군과 심사전문일군을 배치했으며 정기적으로 도급 기업과 좌담회를 열었다. 전 시 20여개 도급 기업의 문제, 의견을 수집하고 문제 명세서와 정부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 명세서를 만들었으며 관련 부문에서 제때에 회답하도록 했다.

기업 개설 원가를 낮추기 위해 훈

춘시는 중소기업 개설 전부 무료 정책을 출범시켰다. 특히 새로 개설하는 기업에 대해 단위 도장, 재무 전용 도장, 법정대표인 성명 도장, 영수증 전용 도장, 계약서 전용 도장, 영업허가증을 모두 무료로 배송해줘 기업 개설, 등록 ‘0 비용’을 실현했다. 5월말까지 훈춘시는 2,743개의 새로 개설하는 기업에 1만 3,715개의 도장을 무료로 발급해 기업을 위해 268.27만원의 수속 비용을 절감해줬다.

훈춘시는 12345 정부봉사열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접수 즉시 처리하는 제도를 전면 추진했으며 기업과 대중의 소구에 제때에 회답하고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훈춘시는 8,047건의 대중 소구를 접수했는데 대중만족률이 96%에 달했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훈춘시는 경영주체의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시장환경 개선, 수익 증가를 추진했다. 시정부무대청과 시범구 정부봉사중심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과 대중이 온라인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온라인 처리률이 100%에 달했다.

훈춘시 각급, 각 부문은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발전의 ‘핵심’, 사업의 ‘주요 진지’로 삼고 중점 대상 건설현장에 심입하는 것을 통해 기업 수요를 료해하고 기업 발전의 막힌 점, 힘든 점을 조를, 해결해 대중과 시장주체의 획득감, 만족도를 확실히 제고했다.

/ 두만강신문

연변대학, 다양한 취업창업 봉사 제공

7일, 연변대학 대학생부하원 보고 청에서는 연변대학 졸업생이자 소시대차 음료수 브랜드의 창시자인 리연의 창업스토리 강연이 한창이었다. 이 활동은 연변대학에서 조직하는 ‘청년 취업창업’ 계열 활동의 일환으로서 졸업생들이 길림에서 취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경로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연변대학은 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지도와 취업봉사를 제공해 졸업생들의 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연변대학 취업봉사 계열 활동인 창업이야기 강연 현장

로 진행되는 것을 뜻하며 ‘3’은 관리, 자원, 지도를 일괄한 사업체계를 통해 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뜻하고 다른 하나의 ‘3’은 선진강화, 전형수립, 사업격려를 통해 취업을 격려하는 것을 뜻한다.

그중에서도 연변대학은 올해 ‘진출’과 ‘도입’ 결부 전략에 핵심을 두고 취업 ‘명거리’ 실현에 큰 힘을 기울여 많은 졸업생들이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기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진출’ 면에서는 인재 양성과 사회 수요의 ‘명거리’ 실현을 둘러싸고 성내의 취업 경로를 적극 넓힌 가운데 장춘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 온오프라인에서 295개의 장춘 채용단위를 초청해 총 1,431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1,688명이 취업의사를 달성했다. 또 ‘서기 교장 기업방문 특별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루계로 280여개 기업을 방문해 1,5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도입’ 면에서는 학교, 지역, 기업의 ‘명거리’ 실현을 둘러싸고 교류협력의 강도를 전면적으로 제고했다. 루계로 469개의 기업과 9,650명의 학생이 활동에 참여하고 3,296명의 졸업생이 취업의사를 달성했다.

연변대학 2020년급 계산기학과및 기술학과 학생 반광서는 “학교에서 온오프라인을 결부하는 형식으로 취업 관련 활동과 초빙회를 경성적으로 조직하고 있는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직업계획을 명확히 하고 취직 기능을 단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재 요구 상황과 지역내의 취업 동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활동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연변대학 2020년급 원림학과 학생 리빙은 졸업을 앞두고 여러차례 리력서를 제출했지만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번 겪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조직한 취업지도 활동에 참가해 학교의 인내심 있는 지도를 받으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었다. 현재 중해홍양물업관리유한회사 길림지사에 취직해 원림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터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면서 연변대학의 취업봉사일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홍안 처장은 아직 취업 대기중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취업 압력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졸업생들은 취업 형세에 대해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개인조건과 사회요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해 직업과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또 정확한 취업 관념을 수립하고 전공에 근거해 적합한 취업 기회를 찾아 일정한 직장 경험을 쌓은 후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연일

147.8억건! 5월 택배업무량 또 최고치 기록

6월 17일, 국가우정국은 2024년 5월 우정업계의 운영 상황을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택배시장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월평균 업무량이 130억건을 초과했으며 특히 5월에는 147.8억건의 택배업무량이 완료되어 올해 1월 월간 택배업무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월간 업무량 규모 기록을 갱신했다. 이는 택배업무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발전 동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좋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이래 택배기업은 써비스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택배의 마을 진입을 다그치고 주동적으로 농산물

의 ‘다양한 품종, 높은 신선도, 많은 량’ 특점에 적응했으며 랑동사를 투입을 확대하고 운수 경로를 최적화하고 써비스 체인을 확장하며 농촌지역 써비스 능력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산물 택배업무 규모화 발전을 추동했다.

택배업무는 또 신질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및 개발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촉진했으며 대규모 류통센터의 스마트화 개조를 가속화하고 무인창고, 무인차량, 드론 등 스마트 설비들을 신속하게 적용해 업계 정보화, 스마트화 수준이 부단히 향상되고 운송 효율, 써비스 품질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도록 했다.

/ 인민넷 - 조문판